****

**이해의 등불**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고 있다.**

탐 이랜더는 여행 뿐만 아니라 장로교 선교에도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그가 지난 겨울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목격하고 배운 것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남아있다. 이주와 이민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장로교 평화 증진 프로그램은 여행 학습 세미나를 주최했고, 탐은 여기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는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잡은 여행 일정에 감사했다.

탐은 로스앤젤레스와 티후와나에서 보낸 나흘 간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멕시코와 중남미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폭력, 그리고 교육과 기회의 부족으로 야기된 삶의 비참함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줄 평화의 등대로서 미국을 그들이 얼마나 자주 동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돌아왔습니다."

탐은 그의 교회인 서부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장로교회와 로라 이스트 부목사님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는 브렌트우드 장로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마태복음 25장](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 교회가 되는데 있어 이스트 목사가 큰 몫을 했다고 전했다. 그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사역과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의 절반은 이러한 세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사용된다(여기에는 장로교 평화증진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25%는 지역 사회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 지역 교회가 보유하며, 나머지 25%는 좀더 넓은 지역 차원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 중간공의회에 전달한다.

탐이 국경에서 경험한 것은 이해의 등불에 불을 밝혀 주었고, 이제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 노회 태스크포스에서 했던 봉사를 통해, 저는 인간과 기독교 형제 자매의 기본적인 필요가 무시당할 때, 우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자유와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의 앞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들 때에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밝혔다. "이런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작은 지원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필요에 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아멘****.*